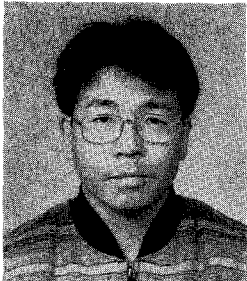


## 생산 과잉과 소비 부진이 종계업 황폐화



김 상 섭  
(하이라이트 종계장)

### 1. 과잉생산 구조적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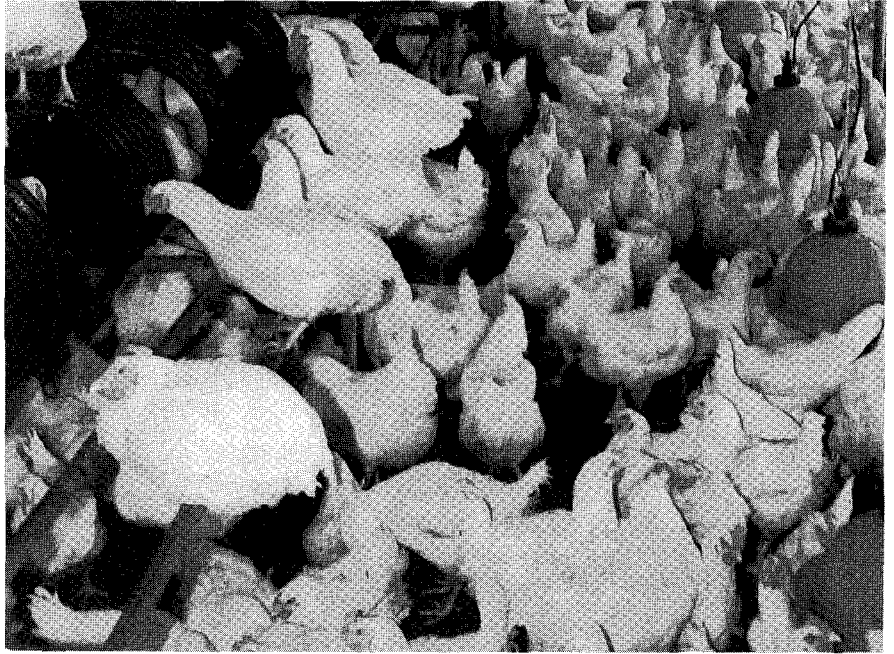
계미년 시작부터 종계업은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높았다. 대다수 종계인들이 금년 한해 동안에는 양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지만 결과는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는 불황으로 종계업은 기력을 잃고 목숨만 부지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원종계 수입량의 과다로 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생산과잉은 여지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초부터 종계감축에 대한 묘법 찾기에 골몰하였으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과잉생산이 지속되는데 반해 닭고기 소비는 경기위축으로 증가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종계업을 포함한 육계산업은 만성적인 적자 경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금년 한해는 종계인들이나 육계인 모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한해였으며, 주름살이 더 늘어 힘겹게 살아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연말까지도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다.

현재 종계인들도 생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 병아리 공급량이 많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종계인들의 책임으로 끝나게

되지만 종계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병아리 생산량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더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계농가들은 육계업의 구조적 변화가 심하게 일어 병아리 판매에 따른 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 감소는 결과적으로 이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불안감

에 휩싸인 종계인들이 차입금을 투입하여서라도 탈락하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에 사육수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이다. 종계업이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요구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 병아리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회만 생기면 자체 종계를 확보하려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계열주체들은 경험이 적은 농가들과 위탁사육을 늘려 결과적으로 육계업계에서 병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하여 종계업계의 어려움은 가시지 않고 있다.

## 2. 종계업의 변화

일반 종계사육 농가 호수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체 사육수수는 증가하여 농가당 사육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일부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위

탁사육 농가들이 증가하여 영세한 종계사육 농가들이 의외로 증가해왔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로 보인다.

일반 종계농가들은 생산한 병아리 대부분을 계열사에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전체 사육되는 종계 중 약 30% 정도만이 일반 종계농가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여서 과잉생산시 일반 종계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급을 조절하려 해도 파급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종계업계에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 4월에 이르러 일반 종계업계와 계열사간에 종계 50만수를 도태키로 하여 계열사 40만수,

표1. 연도별 육용종계 입추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육용종계 입식수수	3,645,100	4,277,700	4,824,552	3,182,780 (9월 기준)
비율(%)	100	117	132	109

일반 종계장 10만수를 각각 자체적으로 도태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에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도 종계도태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20만수에 도태계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지원할 만큼 육계업계가 처한 현실은 매우 긴박했었다.

연초부터 육계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 육계농가와 계열주체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3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생산비 이하에 머물렀다. 불행히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둥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사스(SARS)가 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행객이 급감하고,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겹쳐서 축산물 소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닭고기 소비는 더욱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계업계는 더욱더 긴장감이 나들기 시작하였다.

여기다가 3월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치러진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닭고기 소비는 몇 십%씩 감소하게 되자 육계업계는 급랭하게 되었다. 생산 수준이 높았던 병아리는 가격이 이미 연초부터 100원대에 진입하여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컸지만 월 평균 가격으로 보면 9월을

제외하고는 생산비 이하에서 머물러 장기간 불황으로 이어졌다.

6월 들어 종계업계는 계열사와 함께 병아리 감축을 위해 랜더링 처리를 실시하여 7월까지 계속되었다. 육계 가격이 약간 회복되었던 8월에 접어들어 랜더링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물량은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수요에 비해 아직도 생산량이 많아 병아리 가격은 회복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10월 29일에 다시 종계업계와 계열주체들이 나서서 병아리를 주당 26만수와 48만수 총 74만수 규모로 랜더링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도 수입 닭고기는 매월 높게 반입되어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 닭고기의 설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 3. 종계업의 경영 현황

금년 한해동안 병아리를 생산하여 판매한 종계장의 영업 실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암담할 따름이다. 필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적으로 분석해본 임의의 자료를 보면 종계가 수당 병아리를 118.28수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하고, 지난해 6월에 입식하여 금년 1월부터 병아리를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

표2. 2003년도 종계장 경영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실용계가격(원/수)	170	120	298	270	147	133	131	302	364	170	209(평균)
월간병아리 생산수	7.43	15.04	15.01	14.20	13.31	12.42	11.57	10.66	9.81	8.83	118.28
생산비 320원/수	2,378	4,813	4,803	4,544	4,259	3,974	3,702	3,411	3,139	2,825	37,848
최저 240원 납품	1782	3610	4472	3834	3194	2982	2778	3220	3569	2120	31,561
일반 판매시	1262	1805	4472	3834	1956	1652	1516	3220	3569	1502	24,788
병아리 생산비	378,480,000원						1만수 종계 사육기준				
납품시 수입	315,603,640원(62,892,360원 적자)										
일반 판매 수입	247,888,016원(130,607,984원 적자)										

여 1만수 종계장 소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는 단순히 종계 1만수를 사육하였을 경우 병아리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여 경영 상태를 알아본 자료이다. 실제로 사육규모, 금융비용과 분양을 등을 감안하게 된다면 더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금년 1월부터 1만수를 사육하여 병아리를 일반 판매를 한 경우에는 약 1억3천 만원 이상 적자를 본 셈이고, 납품계약을 하였다면 6천2백 만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한 해동안의 우리 나라 종계업자들은 결론적으로 돈을 벌었다기보다 경영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1만수 종계사육으로 병아리를 판매해 6천만원 내지 1억3천 만원 이상씩 적자를 내는 사

업이라면 종계업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종계업은 품질이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량 조달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종계수수를 늘였다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병아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병아리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이 항상 품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보다 병아리 가격의 진폭이 상당히 완화된 점은 그만큼 종계·부화인들도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과 함께 육계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선에서 병아리를 공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적정한 병아리를 생산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만 종계·부화업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



## 월간양계 구독 안내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행하는 양계농가의 회원지 월간양계 구독협찬금이 2004년 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간양계는 회원 및 구독자를 위하여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월간양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정기 구독 협찬금 내역

- 1년 구독 협찬금 70,000원

- 2년 구독 협찬금 110,000원

△ 연락처 : 전화 : 02-588-7651/팩스 : 02-588-7655/담당부서 : 홍보팀

△ 입금계좌 : 097-01-000953(농협중앙회)/예금주 : 대한양계협회